

# Timaios편의 「필연」에 대한 Archer-Hind의 견해를 음미함

朴 洪 奎  
(哲學科 教授)

## 〈目 次〉

1. 서 론
2. 「필연」에 대한 Archer-Hind의 견해
3. Archer-Hind의 견해에 대한 음미
4. 맺는말

## 1. 서 론

Platon의 말년의 작품인 Timaios편에서는 이탈리아에 있는 Lokris市の 부유한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정치가이자 학자인 Timaios가 Socrates, Afhene의 名門의 子弟인 Critias, 그리고 사라쿠즈의 정치가이자 장군인 Hermocrates를 상대로 질서있는 우주의 탄생에 관해서 진술한다.

우주의 탄생에 관한 진술을 담고 있는 이 대화편에는 Platon의 가장 완숙한 철학사상이 담겨져 있으나 한편 어려운 문제도 들어있다.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47<sup>e</sup>에서 48<sup>b</sup>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필연의 문제이다. 이 대목에서 필연은 방황하는 원인과 동일시 되는데 필연과 방황성은 상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슨 이유로 필연이 방황과 동일시 되었는지 이해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Timaios편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구구하다. 그런데 이 필연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화편의 전체의 이해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만큼 필연의 문제는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본고는 이 필연에 관하여 Archer-Hind가 제시한 견해를 대략 음미하고 과연 이 필연이 이 작품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본다.

## 2. 「필연」에 대한 Archer-Hind의 견해

Archer-Hind는 1858년 출판된 Timaios편의 166 페이지에서 필연에 대하여 주석을 붙이고 그의 견해를 펴려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아래와 같은 見解가 포함되어 있다.

필연(*ἀνάγκη*)은 이성(*νοῦς*)의 밖에 독립되어 있는 힘이 아니다. Platon의 중심사상에는 운동의 유일한 원천(*ἀρχή*)이 영혼(*ψυχή*)이라는 사상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물질 속에는 이성(*νοῦς*)의 힘을 거역하는 힘이 없다. 영혼없는 물질은 그 자체 만으로는 어떤 종류의 힘도 간직하지 못하며 어떠한 힘도 영혼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필연」 또는 방황하는 원인(*πλανωμένη αἰτία*)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성에 依하여 발생한 물질의 힘(*fores of matter*

\* 본 논문은 1981년도 文敎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originated by νόσ)을 뜻하며 물질적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의 全體(the sum total of the physical laws which govern the material universe)를 뜻한다. 이 법칙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법칙은 본성을 지니고 있고 그 본성에 따라서 작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연적인 작용을 하게 되고 이성은 자기모순에 빠진다. 그러므로 자연의 힘은 그때 그때의 조건에 따른 고유한 충동을 가지고 있고, 이 충동에 따라서 일정한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마른 풀이 불(火)과 부딪치면 타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 힘은 물질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이성의 힘이 복수의 形態로 전개된 것이며(evolved itself in the pluralised form) 그 법칙은 일정하다. 그러나 이성은 이 작용의 하나 하나를 점점하거나 교정하지 않는다. 복수로 전개된 물질의 법칙은 모조리 최선의 것을 향해서 작용하지는 않는다.

Archer-Hind는 같은 책의 167 페이지에서 「방황하는 원인」에 관하여 주석을 붙였는데 그 속에 다음과 같은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

방황하는 원인은 필연의 작용에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나 恣意가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모든 물질의 운동은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면 인과관계를 이디서나 추적할 수 있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물질적 힘의 작용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고 그것들이 타자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결과에서 원인으로 소급하기 힘들며 미래를 예언할 수 없다. Platon이 필연을 방황하는 원인이라고 규정함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곧 물질의 작용이 일정한 법칙을 따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만 탐지될 수 없다. 그 결과 그것은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성의 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쉽게 인식될 수 있으나, 간접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는 쉽게 인식될 수 없다.

이렇게 Archer-Hind는 필연과 방황하는 원인에 관해서 주석을 붙이고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동일한 책의 167 페이지에서는 「필연이 思慮있는 것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취절에도 주석을 붙이고 있는데 그속에 아래와 같은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

Platon에 있어서는 자연의 힘은 불가항력적이며 냉혹한 것이기는 하나 그 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성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계획된다. 그 힘은 도달할 수 있는 선을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다. 필연이 이성에 의해서 설복당함은 필연이 이성의 작용의 한 방식임을 뜻한다. Democritus의 필연은 전능하나 비이성적이며 계획이 없이 작용한다. 그 작용 속에서 선이 나오든 악이 나오든 우연에 속한다. Platon에 있어서는 악은 계획적으로 최소한에 국한된다.

### 3. Archer-Hind의 「필연」에 대한 견해의 음미

위와 같이 필연 및 「방황하는 원인」등에 관한 Archer-Hind의 주석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대략 기술되었다. 그 주석에 담겨진 견해 가운데서 음미해야 할 것은 우선 운동이다.

Archer-Hind에 의하면 Platon의 중심사상에는 운동의 원인은 단 하나이며 그것은 영혼이 다는 사상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물질 속에는 이성을 거역하는 힘이 없다고 한다. 영혼없는 물질 그 자체는 어떤 종류의 힘도 지닐수 없으며 모든 힘은 영혼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제 Archer-Hind의 운동에 관한 견해가 정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Platon의 어느 대화편에 있는 운동에 관한 진술이 Platon의 중심사상이 되는지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Phaidros편의 245<sup>e</sup>에서나 Nomoi편 10권 893<sup>b</sup> 이하에서 운동에 관한 진술이 있지만 이 진술의 뜻이 바로 Timaios편에서 진술된 운동의 뜻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고 Timaios편에서 진술된 운동이 그 두 대화편에서 진술된 운동을 기준으로 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强要되기 힘들다. Phaidros편의 운동과 Nomoi편의 운동은 각각 그 대화편의 내부에서 일단 해석되어야 하며 Timaios편에서 진술된 운동은 Timaios편 내부에서 곧 Timaios편의 문맥에서만 일단 해석되어야 한다.

Timaios편에서는 질서있는 우주의 탄생에 대한 진술은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를 기점으로 한다. 곧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에 1. 영원히 있으나 생성하지 않는 것(*τὸ ὄν αἰετέρευσι δὲ οὐκ ἔχου*) 2. 영원히 생성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τὸ γιγνόμενον αἰεὶ ὄν δὲ οὐδέποτε*) 이 있었다. 전자는 영원히 동일한 상태에 있으므로(*αἰεὶ κατὰ αὐτὰ ὄν*) 로고스와 더불어 이성 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으며(*νόησει μετὰ λόγου περιληπτόν*) 후자는 생성 소멸하며(*γιγνόμενον καὶ ἀπολλύμενον*) 참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ὄντως δὲ οὐδέποτε ὄν*) 감각과 더불어 역견(*ὀπίσθη μετὰ αἰσθήσεως*)으로 파악될 수 있다. 여기서 자기동일성을 지니지 않는 운동의 존재가 질서있는 우주의 탄생의 기본적인 전제로서 제출되어 있음이 分明하다. 이 운동이 무질서한 운동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곧 이 운동은 스스로는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그 결과 이 운동에 질서를 주어 우주를 형성하는 제 3의 요인이 필요하다. 이 요인은 제작자, 신, 능동자, 형성자 등으로 불리워 진다. 이 제작자는 선하며 가장 훌륭한 능력을 발휘함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이 대화편에서는 질서있는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에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와 질서를 주는 선한 능동인에 대립된 무질서한 운동이 있다. 우주가 질서있게 형성되기 이전에 있었던 무질서한 상태의 묘사는 그 뒤 되풀이되어 나타난다(48e~53b).

그러면 영혼(*ψυχή*)에 대한 진술은 어떠한가? 29b 이하에 아래와 같은 영혼에 대한 진술이 있다. 「이성(*νοῦς*) 이 있음이 없는 것보다 훌륭하다. 이성은 영혼을 떠나서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신은 이성을 영혼속에, 영혼을 신체속에 결합시켜서 우주를 만들었다.」 곧 영혼은 우주의 질서를 주는 제작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46d 이하에서 원인과 부원인이 구별되는 대목에서 大略 아래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귀결이 있다. 곧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게하거나 덥게하거나 농축하게 하거나 희박하게 하는 作用을 일으키는 것들(*ἀπεργαζόμενα*)을 만물의 원인(*τῶν παντῶν αἰτία*)이라고 대다수

의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원인(συναίτια)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물질적 작용은 로고스(λόγος)나 이성(νοῦς)을 지니고 있지않다. 이성(νοῦς)을 자기의 고유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ψυχή)이기 때문이다. 영혼은 볼 수 없고 불, 물, 흙, 공기등은 가시적이다. 이성과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知的인 원인을 제 1 차적으로 추구해야하며, 타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필연적으로 다시 타자를 움직이는 것의 원인은 제 2 차적인 원인으로 삼아야 한다. ……이성(理性)과 더불어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만드는 자(δημιουργοί)로서의 원인과, 사려 없이 아무 것이나 되는 대로 질서없는 것(τὸ τυχόν ἄτακτον)을 일으키는(ἐξεργάζονται) 원인의 두 종류(ἀμφότερα τὰ τῶν αἰτιῶν γένη)가 구별되어야 한다.

위의 문장에서 理性, 영혼, 善을 만들어내는 것, 셋의 관계가 드러나 있고 이러한 것이 그렇지 않는 것, 곧 物質과 대립되어 있다. 그런데 주목하여야할 점은 우연적이고 무질서한 것(τὸ τυχόν ἄτακτον)을 일으키는 원인도 그러한 것을 ‘일으킨다(ἐξεργάζονται)’라고 規定되어 있음이다. 여기서 ‘일으킨다(ἐξεργάζονται, work)’라는 이 規定은 우연적이며 질서없는 것을 일으키는 원인도 운동의 원인임을 明示한다. 그리고 이 ‘일으킨다(ἐξεργάζονται)’라는 규정은 아름답고 善한 것을 만들어내는 者(δημιουργοί)로서의 원인의 作用과 分明히 구별된다. δημιουργοί(handicraftsman, skilled workman)는 제작자를 뜻하며 이 對話篇에서는 무질서한 生成界에 질서를 주는 能動者인 제작자가 δημιουργός이며 δημιουργοί는 그것의 複數形이다. 곧 그것의 작용은 단순히 일으킨다는 것과 다르다.

우연적이며 질서 없는 것을 일으키는 원인과 他者로부터 운동을 받아들여 必然적으로(ἐξ ἀνάγκης) 他者를 움직이는 原因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他者를 움직이기 전에 그 운동을 다른 他者로부터 받아들임은 운동의 能動性에 앞서는 受動性을 뜻한다. 운동의 수동성은 그 수동성이 뜻하는 범위내에서 어떠한 운동도 받아들이고 따라서 어떠한 事物의 性質도 되는대로 받아들임을 뜻하며 따라서 그만큼 一定한 질서에 대해서 a priori한 규정이 그것에 缺乏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無規定性은 연속성이 지닌 성격의 一面이다. 받아들여진 운동이 他者를 必然적으로(ἐξ ἀνάγκης) 움직임은 운동에 있어서 必然性이 연속성에 起因함을 뜻한다. 수동성은 우연성, 연속성, 무규정성과 밀접한 關係 속에 있으며 能動性과는 다른 운동의 側面이다.

이렇게 영혼이 운동의 유일한 원천이 아님은 분명하다. 곧 운동의 유일한 원천이 있으며 그것은 영혼이라는 견해는 이 대화편에는 없다. 물질 속에는 이성의 힘을 기억하는 힘이 없고 영혼없는 물질은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힘도 간직하지 못하고 어떤 힘도 영혼에서 나온다는 Archer-Hind의 주장은 원문에 없다.

Archer-Hind는 또 「필연」 또는 「방황하는 원인」은 이성에 의해서 발생한 물질의 힘(the forces of matter originated by νοῦς)이며 물질적 우주를 지배하는 法則을 뜻한다고 주장하며 이 法則이 物質의 必然的인 法則이 되지만 複數로 되어 있고, 理性이 物質의 法則을 다

점점하지는 못하며 따라서 모든 物質의 法則이 善을 向하지는 않는다는데 방황하는 原因이 成立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황하는 原因과 同一視되는 必然에 對한 이 對話篇의 進술에서 理性(νοῦς)은 生成하는 것의 大部分을 가장 좋은 것으로 引導하도록 必然을 說得하므로써 支配한다(νοῦ δὲ ἀνάγκης ἀρχοντας τῷ πείθειν αὐτὴν τῶν γιγνομένων τὰ πλεῖστα ἐπὶ τὸ βέλτιστον ἄγειν). 곧 必然이 理性에 依하여 설득되며 支配되지 않으면 物質은 그것의 수동성으로 因하여 目的없고 질서없는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질서 있는 우주가 탄생하기 以前에 있었다(πρὸ τῆς οὐρανοῦ γενέσεως 48b).

질서 있는 우주가 탄생하기 以前에는 우선 物質을 구성하는 원소가 없다. 지수화풍(地水火風)등이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자기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기동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자기동일성을 상실하면서 끊임없이 유전(流轉)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것을 불이라고 하며 또는 물이라고 하여야 할런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물이 영키면 돌이나 흙이 되고 녹아서 분해되면 바람이나 공기가 되고 공기가 타오르면 불이 된다. 불이 다시 영키면 공기로 돌아가며 공기가 다시 영키면 구름이나 안개가 된다. 구름이나 안개가 영키면 물이 되고 물에서 다시 흙이나 돌이 생긴다. 이러한 어느 것도 자기동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정한 規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타자와 엄밀히 구별될 수 없다(49d). 곧 物質이 끊임없는 變질의 과정 속에 있다. 이런 것들은 존재라고 불리워질 수 없다(49e). 이런 것들은 고정적인 상태를 지시하는 명사 예를 들어 「이것」 「저것」으로 표시될 수 없고 유동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형용사적인 말,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것들은 고정적인 상태를 지시하는 언어표현에 복종하지 않고 도망간다. 그것들이 어떤 규정사로 규정되든 규정되는 그 사이에도 변하고 있다(50b). 이렇게 유전(流轉)하는 物質에는 그것들 상호간에 분명한 區別이 없다.

그런데 우주의 질서가 탄생하기 以前의 狀態에 對한 다음과 같은 陳述도 있다. 불, 불, 공기, 흙등은 우주가 形成되기 以前에는 質적으로 變化하여 마지 않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ὑποδοχή)은 自己同一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 물, 공기, 흙과 그것들의 生成變化를 받아들이는 것은 엄밀히 區別되기에 이른다. 불, 물, 공기, 흙의 變化를 받아들이는 것은 공간(χώρα), 자리(ἔδρα), 保母(τίτθη), 어머니(μήτηρ)등으로 命名되고 그속에 들어오는 것은 흔적(ἴχνη)이라고 규정된다. 흔적은 공간 속에 들어온 事物의 原型의 흔적이며 수용자(ὑποδοχή)속에 原型이 남겨 놓은 原型自體의 성격의 一部分이다. 그리하여 事物의 原型, 공간, 공간속에 들어온 原型의 흔적이 區別되고 흔적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논의된다.

질서있는 우주가 形成되기 以前에 있었던 공간에서 成立하는 불은 공간이 불로 되는 部分이며 물은 공간이 물로 되는 部分이며 흙은 공간이 흙으로 되는 部分이며 그것들을 받아

들이는 공간은 무규정적이며 일정한 方式으로 事物을 받아들이다록 미리 統制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은 多樣하며 均衡잡하지 않는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따라서 全體의 調和를 이룰 수 있는 統制가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주어지지 않았고 운동은 모든 方向으로 無差別的으로 일어나고, 그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공간과 그속에 들어 있는 物質은 서로 영향을 주고 또 받고 하였다. 그 結果 物質들은 흔들리는 체에서 무겁고 알맹이가 있는 곡물과 가볍고 알맹이가 없는 곡물이 分離되어 各各 다른 場所로 옮겨가듯이 이 공간속에 있는 물질도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체속에 있는 곡물처럼 分離되고 各各 다른 장소를 차지하였다. 우주의 질서가 탄생하기 以前에 물질이 질적으로 變化하여 마지 않는 경우에도 방황하는 원인은 物質을 支配하였으나, 이렇게 공간속에서 物質들이 공간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彷徨하는 原因은 物質의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곧 그 운동에는 全體의 조화를 가져오는데 必要한 比例나 尺度가 없었다. (*ἀλόγως και ἀμέτρως* 53a.)

이렇게 필연은 Archer-Hind가 주장하듯이 물질의 법칙을 뜻하지 않고 물질의 방황하는 원인이며 방황은 타자성이 지닌 受動性에 의해서 이루어짐은 분명하다. 또 필연이 물질의 법칙이며 물질의 법칙은 엄밀히 이루어지나 우리에게는 탐지될 수 없고 따라서 恣意가 물질의 운동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Archer-Hind는 주장한다. 그러나 우주의 질서가 탄생하기 이 전에 있었던 무질서한 상태는 사실이 아니지만 다만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원문은 진술하고 있지 않다. 우주의 질서가 탄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무질서가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확고부동한 사실이었다.

또 Archer-Hind에 依하면 필연 곧 방황하는 원인은 영혼에서 발생한 힘이며 필연이 이성에 의하여 설복됨은 필연이 이성의 작용의 한 방식임을 뜻하게 되지만 이러한 견해는 이 대화편에 담겨져있는 우주형성론을 일원론에 접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 대화편에서 그려진 우주형성의 이론은 일원론이 아님은 重言할 필요가 없다.

필연이 이성에 의하여 설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설복은 말을 사용하여 타인의 마음을 자기의 견해와 동일한 견해를 갖도록 引導함이다. 이때 설복은 증명과 대립된다. 참다운 지식은 설복에 의해서 얻어지지 않고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말을 주고 받는 사람의 영혼 사이에 이루어진 사태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다만 설복이 擬人化되어 있을 따름이다. 그러면 이렇게 의인화되는 배후에 있는 이론은 무엇인가? 이성은 생성하는 것의 대부분을 선한 것으로 이끌도록 필연을 설복함으로써 지배한다. (*νοῦ δὲ ἀνάγκης ἄρχοντος τῷ πείθειν αὐτὴν τῶν γινομένων τὰ πλείστα ἐπὶ το βέλτιστον ἄγειν*)라는 라는 원문의 뜻은 Archer-Hind의 주석에서 해석될 수 있듯이 불가항력적이며 냉혹한 물질의 법칙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통제함이 아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법칙이 불가항력적이며 냉혹하다면 그것을 선한 것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질의 법칙이 이성에 依해서 나

은다고 Archer-Hind는 해석하고 있으나 만약 그렇다면 구태여 이성이 물질의 법칙을 설복시킬 필요도 없다. 또 물질의 법칙이 이성에 依해서 나온다면 이성은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이성에 依해서 선하지 않는 것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성(νοῦς)은 생성하는 것의 대부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도록 설복함으로써 필연을 지배한다는 원문의 진술에 있어서 이성(νοῦς)과 필연(ἀνάγκη)은 단수이며 생성하는 것들(τῶν γινομένων)은 복수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것(τὸ βέλτιστον)도 단수이다. 곧 필연은 여러 생성하는 것의 배후에서 그것들을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이성과 대립되는 어떤 요인이다. 그런데 설득되는 것은 단 하나의 방식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과는 다르게 생성할 수 있다 곧 그것은 여러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가능태를 그것의 본성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필연은 가능성을 그것의 본성에 지니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필연을 설득함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설득함에 비슷하다. 왜냐하면 말로 타인의 마음을 설득하는 경우, 타인의 마음은 일종의 가능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득하는 사람의 마음도 일종의 능력으로서 존재한다. 이와 비슷하게 이성이 필연을 설득한다고 할때, 이성은 능동자이며 필연은 수동자이다. 따라서 필연은 수동적인 가능태에 있으며 이 가능성은 타자성에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능동자는 자기동일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며 수동자는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자신의 성격이 타자로 바꾸어 질 수 있음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성이 필연을 설득함은 자기동일성을 지닌 작용이 수동적인 가능태에 있는 것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능동적인 작용에 맞게 함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은 필연의 수동적인 가능태로서 성격을 인정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와 다르다. 강제는 상대방이 지닌 가능태로서의 능력을 무시한다. 필연이 지닌 수동적인 능력은 타자성에 근거한다. 이 대화편에는 타자성을 지배하는 방식이 둘 있다. 그 하나는 강제이고 또 하나는 설복이다. 타자성을 강제로 동일성에 다르게 함은 우주의 영혼을 만드는 대목, 곧 35a에 나타난다.

우주를 만드는 신은 영원히 존재한다. 곧 자기동일성으로 인하여 영원의 차원에 선다. 이 신에 의하여 우주의 영혼이 만들어 진다. 신은 먼저, 나눌수 없고 항상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는 존재(οὐσία)와 물체에서 성립하는 가분적인 존재의 중간에 제 3의 존재의 종류를 양자의 혼합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동일성의 본성과(τῆς ταύτου φύσεως) 타자성의 본성(τῆς τοῦ ἑτέρου φύσεως)에 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 불가분적인 것과 물체에서 성립하는 가분적인 것의 중간에 제 3의 종류를 각각 만들었다. 그런데 타자성이 자기동일성에 혼합됨이 힘들므로 강제(βιά)로 그것을 자기동일성에 신은 적합시켰다. 그뒤 위에서 말한 存在, 同一性, 他者性에 關하여 그것들 각각의 중간에서 성립한 셋으로부터 하나의 영혼을 만들었다. 곧 이 영혼에서는 동일성이 타자성을 강제로 지배한다. 이러한 사정은 이렇게 혼합된 것이 조화있는 비례로 나누어진 뒤 돌로 다시 나뉘어져서 X자의 형태로 만들

어지고 다시 그것의 두 끝이 각각 결합되어 두 원(圓)이 만들어 지는데 밖의 원은 동일성의 원으로, 속에 있는 원은 타자성의 원으로 규정되는데 나타나 있다. 동일성에 의하여 타자성이 지닌 성격은 강제로 구속당한다. 그 결과 봉쇄적인 두 원이 형성되는데 내부에 있는 타자성의 원은 밖에 있는 동일성의 원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된다. 곧 타자성의 원의 궤도는 항상 동일성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그결과 밖에 있는 원의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 두 원은 각각 우주의 운동을 지배하고 있는 우주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을 암시하기도 하며 또 타자성은 우주의 완전한 구의 내부에서 돌고 있는 遊星의 궤도를 뜻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타자성은 동일성에 의하여 완전히 구속을 받고 있으며 동일성을 파괴하지 않으므로 우주의 운동은 完全히 조화를 이루고 또 우주의 운동은 영원히 보존된다. 곧 이 우주는 병들지 않고 사멸하지 않는다. 우주는 모든 형태 중에서 가장 完全한 자기 동일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는 구형을 하고 있으며 그 구형 밖에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곧 그것은 그것 밖에 타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그것 자체를 스스로 지탱하고 유전하거나 파괴되지 않고 영생한다.

자기동일성이 타자성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설득에 의한다. 설득에 의한 지배는 타자성이 지닌 가능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가능성이 내포하는 힘을 이용하여 동일성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므로 타자성은 항상 자기 동일성 밖에 있으며 타자성임을 상실하지 않는다. 가능성의 이면은 우연성이므로 동일성의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타자성이 내포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설득은 없고 설득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다. 우주의 질서를 주는 제작자는 선하다. 곧 그는 선한 의지의 소유자이다. 그는 이 우주에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질서와 조화를 주려고 의도하며 계획한다. 또 그는 그러한 계획을 실천에 옮김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곧 가장 탁월한 기술자이다. 타자성을 설복시켜 그것에 질서를 주는 경우 가사적인 사람은 그것의 적은 일부분에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주는 우주의 제작자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생성의 가장 많은 부분에 그 자신의 능력의 가장 많은 부분을 발휘하여 선으로 이끌 수 있다. 우주에 가장 훌륭한 질서와 조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이다.

강제에 의하여 동일성이 타자성을 지배하는 경우와는 달리 설득에 의한 타자성의 지배는 타자성의 자기동일성을 가정하므로 설득에 의하여 타자성에 주어진 질서와 조화의 보존은 완전할 수 없다. 설득에 의하여 주어진 질서와 조화는 병들 수 있고 종말을 가질 수 있다. 우주의 영혼에서는 이미 언급되었듯이 동일성이 타자성을 강제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영혼의 지배를 받는 데 우주의 신체는 영원히 보존된다. 그러나 이성이 必然을 곧 타자성을 설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사람의 신체는 병에 걸리고 종말을 받아 들인다. 신체를 구성하는 지·수·화·풍이 부자연스럽게 너무 많거나 부족하는 경우 또 그것들이 각각 차지하는 고유한 장소를 벗어나서 서로 제각기의 장소를 바꾸거나 또는 신체의 각 부분이 그



것에 부적당한 종류의 원소를 받아들이는 경우 신체내에서 조화가 깨지고 병이 생긴다. 신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성과정이 신체의 본성에 합치되는 일정한 순서에 따르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곧 신체의 본성에 따르는 생성의 순서가 있으나 이에 거역하면 병이 생긴다.

영혼에도 신체의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 있다. 이성의 결핍(*ἀνοια*)이 그것이다. 이성의 결핍에는 광기(*μάνια*)와 무지(*ἀμαθία*)가 있다. 그리고 또 度를 넘는 쾌락과 고통도 마음의 병이다. 더 나아가서 생명체는 種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을 살도록 豫定되어 있을뿐 아니라 낱알의 생명체도 운명에 의해 정해진 일정한 수명을 살도록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삼각형은 충분한 힘을 일정한 시간까지는 지니고 있으나 그 한도를 넘어서 생명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89c).

이렇게 필연이 이성에 의하여 설복됨은 Archer-Hind가 해석하는 것처럼 필연이 이성의 기능의 일부분임을 뜻하지 않는다. 설복은 必然이 강제로 理性의 지배를 받지 않음을 뜻한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Timaios편에는 두 단계의 이성적 질서가 있다. 하나는 이성이 타자성을 강제로 同一性에 따르게 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질서이고, 다음은 必然 곧 타자성이 설복됨으로서 성립하는 질서이다. 그리고 완전한 질서 곧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질서가 불완전한 질서보다 선행한다. 불완전한 질서를 서술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방황하는 원인이 논의될 수 밖에 없다. 불완전한 질서가 있는 이유는 타자성이 동일성 밖으로 나오며 방황하는 원인이 이성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 4. 맺 는 말

위와같이 Archer-Hind가 필연, 방황하는 원인 및 理性에 의한 방황하는 원인의 설득에 대하여 붙인 주석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의 일부가 음미 되었다. 그러면 과연 필연은 Timaios편에서는 무엇을 뜻하는가.

필연이 나타나는 47c에 있는 문장은 대개 다음과 같은 귀결로 시작한다.

“지금까지 진술된 것은 그중에 적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필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을 위의 진술에 첨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탄생은 필연과 이성이 혼합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위의 문장에서의 적은 부분이 45b에서 46c에 이르기까지 진술된 부원인으로서의 물질을 뜻한다고 하면, 필연은 부원인으로서의 물질까지 합한 이성 이외의 원인을 뜻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원인만이 필연을 뜻할 수 없게 된다. 뿐더러 그 이유는 다음에 계속되는 문장에서도 나타나 있다.

“이성은 생성하는 것의 대부분을 선으로 인도하도록 필연을 설복함으로서 지배하는바 이렇게 사려있는 설복에 따르는 필연에 의하여 우주는 최초로 구성되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만유가 어떻게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는가를 진실로 진술하려면 방황하는 원인의 종류를 그것이 운동을 일으키는 방식대로 섞어야 한다”(48a). 이 문장에서 필연이 방황하는 원인임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부원인으로서의 물질은 방황하는 물질이 사려있는 이성에 의하여 지배되는 경우 성립한다. 부원인은 신이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사물의 모습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한다(46c). 그러나 방황하는 원인은 신의 작업을 방해할 수 있다. 방황하는 원인이 물질로 하여금 그것의 본질로부터 이탈시켜서 방황케 함은 48b 이하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이미 위에서 언급되었다. 필연은 이성과 동등한 우주의 다른 원인이며 이성에서 접근할 수 없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48b에 있는 진술에서 나타나 있는데 그 뜻은 대략 아래와 같다. 곧 우주의 탄생에 관한 陳述을 다른 시초를 붙잡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귀결에서 지적된 다른 시초란 필연을 뜻한다. 필연은 새로운 원인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物質이 겪는 상태는 그것의 質이 연속적으로 상실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변천의 과정등을 포함한다. 이것은 이미 위에서 진술된 바와 같다. 곧 우주의 질서가 탄생하기 以前에 地水火風은 自己同一性을 지니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變化하기 때문에 무엇을 흠이라고하며 무엇을 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分明히 區分하기 어렵다. 이러한 變質은 연속적으로 他者化됨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質의인 變化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속적인 결핍이 거기에는 있다. 연속성의 裡面은 결핍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속적인 결핍은 공간으로 變한다. 연속적인 결핍에서는 그 만큼의 質의 自己同一性이 成立하기 때문에 흔적이 성립한다. 質의 彷徨性과 공간성은 연속성의 두 側面이다. 存在와 無의 모순 관계에는 단절이 있었으나 存在도 無도 아닌 곧 無規定性 곧 他者性에는 연속성이 포함되는데 운동성과 공간은 연속성의 두 側面이다. 質의 彷徨性은 質의 自己同一性이 연속적으로 他者化되는 과정이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彷徨하는 원인은 사물의 흔적을 사라지게 한다. 그러므로 질서있는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무질서에서도 단계가 있다. 그 하나는 물질이 유전(流轉)하여 흔적도 사라지는 단계이며, 다음은 수용자 속에 들어온 물질의 흔적이 남아있어 다만 그것이 공간적으로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단계이다. 이 불규칙한 운동은 결국 지수화풍을 그것의 무거움과 충만함과 그렇지 않음에 따라서 공간적으로 구별한다. 그러나 그결과 수용자 속에 들어온 물질은 서로 일정한 比例로 섞여서 질서있는 우주를 형성하지 않고 해체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나 한편 방황하는 측면과 공간은 양자의 공통적인 기반인 타자성의 두 측면이며 방황성은 동적인 측면이며 우주의 질서를 집어 넣는 신 즉 제작자와 상관되는 측면이며 제작자에 의하여 타자성이 설복될 수 있는 측면이다.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은 움직이지 않는 형상(形相)의 흔적을 받아들이는 타자성의 측면이다. 곧 형상(形相)과 관계 맺는 측면이다. 따라서 동적인 측면과 정적인 측면은 무질서의 단계를 뜻하지 않고 타자성의 동등한

두 측면을 뜻할 수도 있다. 설득에 의한 방황하는 원인의 지배와 공간의 기하학적 도형에 의한 규제는 同一性이 他者性을 支配 함으로써 우주의 질서가 탄생하는 경우에 필요한 두 조건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한 움직이지 않는 형상과 능동적인 제작자가 우주의 질서의 형성의 원인으로서는 갖는 성격과도 관련되는데, 이 성격과 관련하여 질서있는 우주의 탄생은 아래의 셋으로 해석될 수 있다. 1. 우주의 原型과 能動因인 制作者는 동일한 次元에서 우주의 질서를 탄생시키고 유지시켜주는 必要한 원인이며 우주의 질서는 두 원인의 協力에서만 가능하다. 2. 이 우주의 질서의 탄생은 영원한 우주의 原型이 무질서한 生成界에 모방되는 과정이다. 곧 形相이 中心이 되어 해석된다. 이러한 경우 우주의 原型은 모든 原型 가운데서 가장 완전한 原型이므로 이 완전한 原型이 무질서한 生成界 속에 가장 完全히 모방되기 爲해서는 가장 完全한 製作者가 必要하다. 곧 가장 完全한 善意를 가지며 가장 완전한 능력을 지닌 제작자가 필요하다. 3. 이 우주 질서의 탄생은 제작자의 선의가 무질서한 생성계에 발휘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제작자는 최고의 선의와 또한 가장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제작자이다. 최고의 선의와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최선의 原型과 무질서한 生成界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주가 이성과 필연의 혼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며 필연이 방황하는 원인과 동격이라면, 이러한 진술은 필연이 타자성의 오직 동적인 측면 곧 이성(νοῦς)과 관계 맺는 측면만을 뜻하게 된다. 그러나 왜 타자성의 이러한 측면이 필연이 되는지 그 까닭은 원문에서는 分明하지 않다. 만약 필연이 물러나지 않는 것 곧 회피될 수 없는 것을 뜻한다면 우주의 질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성은 그것 밖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 따라서 회피될 수 없는 것, 곧 그것밖에 있는 타자성의 동적인 측면과 관계를 맺어야만 됨을 뜻한다. 心然性 곧 不可避性은 연결성에 內包된 규정의 하나이며 연결성이 단절되므로써 成立하는 우연성과 對立된다. 우연성은 회피될 수 있고 물러설 수 있다. 理性(νοῦς) 곧 우주의 제작자(δημιουργος)와 他者性의 動的인 部分은 事物의 原因으로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 회피될 수 없다. 그리고 연결된 것은 서로 밖으로 나가는 部分을 지닌다. 그러므로 理性(νοῦς)에 對立된 必然(ἀναγκή)은 이성에 依하여 說得될 수 있는 側面 곧 理性의 能動的인 힘과 一致할 수 있는 側과 理性(νοῦς)에 依하여 說得될 수 없는 側面, 곧 理性의 能力 밖으로 나오는 側面을 아울러 지닌다. 곧 他者性의 動的인 側面을 說得시킴은 우주의 질서를 탄생시키기 爲해서 不可避하다. 곧 必然的이다. 그러나 理性에 依하여 說得될 수 없는 部分도 說得되는 部分과 連結되어 必然的으로 우주의 질서의 形成에 부정적인 要因으로서 들어온다. 이러한 사정은 必然이 설득됨에 依해서 이루어진 질서가 不안전함에 드러난다.

## 텍스트 및 參考文獻

R.D. Archer-Hind: The Timaeus of Plato

A. Rivaud: Platon Timée.

F.M. Conford: Plato's Cosmology.

A.E. Taylor: A Commentary on Plato's "Timaeus".

G. Vlastos: The Disorderly Motion in the Timaeus

G.R. Morrow: Necessity and Persuasion in Plato's Timaeus.

A. Rivaud: Le Probleme du devenir et notion de la matière dans la philosophie grecque

«Summary»

Examination of Archer-Hind's Opinion on  
'Necessity' in Plato's Timaios

Hong-Kyu Park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some opinion of Archer-Hind which are involved in his commentary on 'necessity' of Plato's Timaios.

His opinion is as follows:

There is a cardinal doctrine of Plato which means that the only source of movement is soul.

Therefore there is not any resisting power in matter against *νοῦς* (reason). Necessity or errant cause is the forces of matter originated by *νοῦς* (reason), the total sum of physical laws which govern the material universe, the laws which govern in the form of plurality. All nature's forces must follow their proper impulse according to the conditions in which they are for the time being. But within these laws we see that things do not always work for the best. That fact that necessity is persuaded by reason means, according to Archer-Hind, that necessity is a mode of the operation of intelligence. Archer-Hind also maintains that necessity is the errant cause and though necessity is working strictly in obedience to a certain law, it is for the most part not inscrutable to us as if it acted from arbitrary caprice. The key point of Archer-Hind's commentary is based on the supposition that the only source of movement is soul. This paper intends to refute this opinion.

In Plato's Timaios there are two kinds of movement, the one is order-giving activity, the other is passive movement, and this passivity is origin of disorder. Necessity which is the errant cause is based on the passivity of things. For this reason the other opinions of Archer-Hind are easily refuted. The original meaning of necessity is contrary to contingency. The errant cause is necessary to the god who makes the world order, because both are connected as causes of the existence of world.